

# '7중·3약'... 치열한 프로야구 순위 경쟁

### 4연패 LG vs 롯데 2연전·7연승 키움은 KIA와 대결 1위 SSG·7위 NS 승차 2.5게임... 매 경기 순위 변동

2021년 한국프로야구 초반 판세는 '7중·3약'이다. 1위 SSG 랜더스와 7위 NC 다이노스의 승차는 2.5게임에 불과하다. 7개 팀이 빈틈없이 늘어서 있고, 매 경기 순위가 바뀐다.

8위 한화 이글스와 10위 롯데 자이언츠의 격차는 1.5게임이다. 9위 KIA 타이거즈까지 세 팀은 힘겨운 탈꼴찌 싸움을 펼친다.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연패는 치명적이다. 반면 연승을 거두면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LG 트윈스는 지난주 4연패를 당해 1위에서 6위로 추락했다.

LG는 이번 주 26일과 2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최하위 롯데와 2연전을 벌인다. 지난달 27~29일, LG는 롯데를 홈으로 불러들여 2승 1패를 거뒀다. 이번 방문 경기에서는 더 큰 성과가 필요하다.

키움 히어로즈는 최근 7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7위에서 4위로 도약했다. 키움은 26일과 27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와 맞붙는다. 4월 6~8일, 고척 홈 3연전에서 싹쓸이 패배를 당했던 아픔을 설욕할 기회다. 최근 박병호를 중심으로 화력이 살아나고 있어 KIA전을 준비하는 키움 선수단의 마음은 한결 가볍다.

LG와 키움은 28~30일 잠실구장에서 3연전을 펼친다.

주중 하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 승수를 쌓아놓아야 주말 3연전의 부담이 줄어든다.

첫 5연승을 거두며 1위로 지난주를 마감한 SSG는 주중 kt, 주말 한화와 방문 경기를 치른다.

주말에는 한국 야구를 대표하던 타자와 투수의 '늦은 은퇴식'이 열린다.

한화는 29일 대전에서 김태균의 등번호 53을 영구 결번하며 프랜차이즈 스타를 예우한다.

KBO리그 역대 우타자 통산 안타 1위(2천209개), 한·미·일 프로야구 최다 경기연속 출루(86경기) 기록을 세운 김태균은 1년 미룬 팬들과의 작별 인사를 한다. KIA는 30일 광주에서 윤석민이 은퇴식을 연다. 윤석민은 이

날 시구를 하고, 경기 뒤 유니폼을 구단에 반납한다.

25일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다.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들은 24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마음 편히 하루를 쉰다.

#### ▶KBO리그 순위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1	SSG	23	0	17	0.575
2	삼성	24	0	18	0.571
3	KT	22	0	18	0.550
4	키움	23	0	19	0.548
5	두산	21	0	19	0.525
6	LG	22	0	20	0.524
7	NC	21	0	20	0.512
8	한화	17	0	24	0.415
9	KIA	16	0	24	0.400
10	롯데	15	0	25	0.375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된 제주유나이티드 강운성. 사진= 제주유나이티드 제공

## 제주Utd 강운성 김학범호 승선

### 6월 소집훈련·가나전 참가

제주유나이티드의 '멀티플레이어' 강운성(23)이 6월 소집훈련 및 가나와의 평가전에 나설 23세 이하(U-23)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됐다.

김학범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은 24일 파주NF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소집훈련 및 가나와 두 차례 평가전(6월12일과 15일)에 참가할 U-23 올림픽 대표팀 28명 명단을 발표했다. 제주에서는 강운성이 이름을 올렸다.

강운성은 소속팀 제주에서 공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지만 U-23 대표팀에서는 측면 수비수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A대표

팀)과의 스페셜매치에도 참가했을 정도로 U-23 대표팀에서 입지를 계속 넓히고 있다. 지난 3월 소집 훈련에도 참가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U-23 올림픽대표팀은 6월 12일 오후 7시, 6월 15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강운성은 "연고지 제주에서 열리는 평가전이기에 동기부여가 커졌다"면서 "제주의 일원으로 자신감을 갖고 대표팀에서도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집은 도쿄 올림픽 최종 명단 발표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테스트 무대로 이강인(발렌시아), 이승우(포르티모넨세SC), 정우영(SC프라이부르크) 등 해외파 유망주들이 대거 발탁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mailto:ejoh@ihalla.com)

## 어깨 무거워진 에이스 류현진

### MLB TB전 6%이닝 2실점 최지만과 동산고 선후배 대결 107구 역투에도 4-6 역전패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토론토 입단 후 가장 많은 공 107개(종전 100개)를 던지며 역투했다.

류현진의 역투에도 토론토는 불펜 난조로 5연패 늪에 빠졌다.

류현진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TD볼파크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8안타를 맞고 2실점 했다. 삼진은 7개를 잡고, 사사구는 1개를 허용했다.

류현진은 2-2로 맞선 7회초에 마운드를 넘겨 승패 없이 물러났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51에서 2.53으로 조금 높아졌다.

승수 시계는 '4'(2패)에서 멈췄지만, 류현진은 높은 직구와 무릎을 향하는 커터, 낱자 큰 커브를 활용하며 '제구 마스터'의 위용을 한껏 과시했다.

9경기 연속 볼넷을 1개 이하로 억제하는 놀라운 기록도 이어갔다.

류현진은 탈삼진/볼넷 비율 8.67

개(탈삼진 52개/볼넷 6개)로 메이저리그 전체 3위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마운드를 내려간 뒤인, 8회말에 터진 랜델 그리치의 중월 투런포로 균형을 깬다.

그러나 불펜진이 9회초 볼넷을 남발해 4-6으로 역전패했다. 탬파베이는 10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백리전에서 처음으로 펼쳐진 '동산고 선후배 대결'은 치열했다.

류현진은 2회 탬파베이 한국인 타자 최지만(30)과의 첫 대결에서 2루 땅볼로 웃었지만, 4회에는 좌중간 담을 때리는 2루타를 허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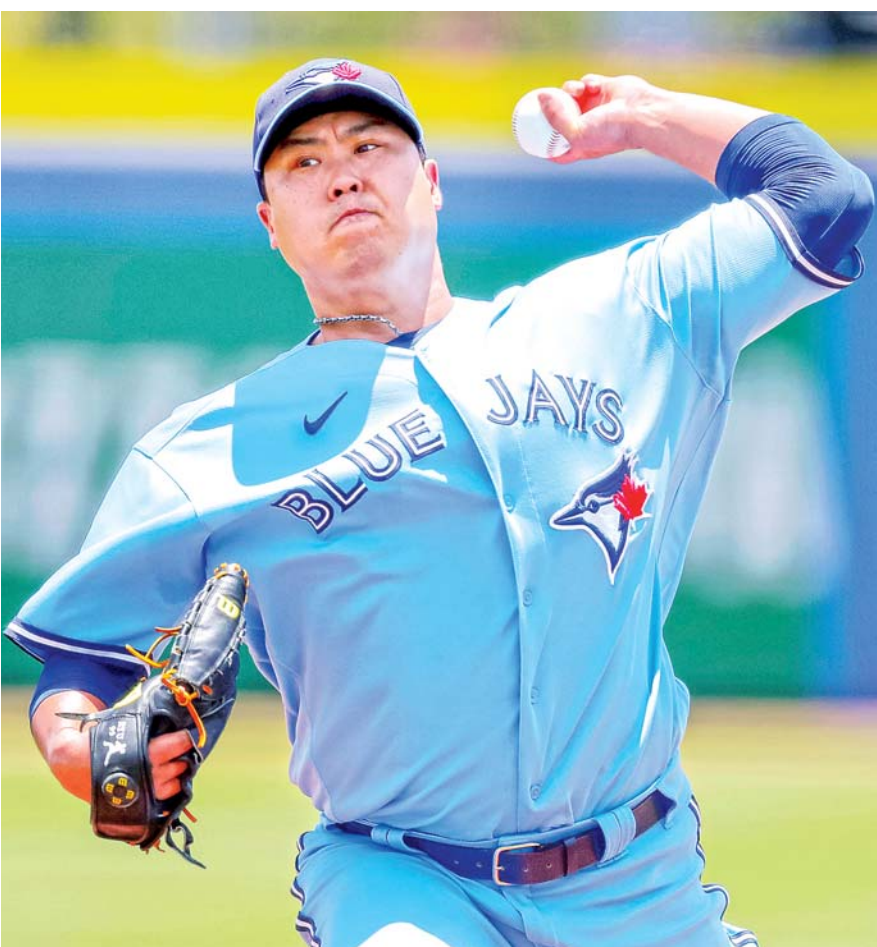
류현진은 6회 2사 1, 2루에서 다시 최지만을 만나 루킹 삼진을 잡으며 설욕했다. 둘의 맞대결 결과는 3타수 1안타 1삼진이다.

류현진은 4회 2사 1루에서는 최지만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야수들의 도움으로 실점하지 않았다.

최지만의 2루타 때 홈으로 내달리던 마이크 브로소가 중견수, 유격수, 포수로 이어지는 중계에 태그아웃되면서 득점에 실패했고, 이닝도 끝났다.

류현진과 최지만의 이날 마지막 승부도 뜨거웠다. 류현진은 6회초 2사 1, 2루 위기에서 최지만에게 시속 147km짜리 바깥쪽 직구를 던져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날 류현진은 공 107개를 던졌



24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토론토와 탬파베이의 경기에서 류현진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류현진의 백리 개인 최다 투구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이던 2019년 5월 13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던진 116구다.

그러나 탬파베이는 9회초 선두타자 최지만의 볼넷으로 역전승의 토대를 마련했다.

브랜던 로의 안타로 찬스를 이어간 탬파베이는 1사 1, 3루에서 나온

필립스의 중전 안타로 한 점을 추격했다. 최지만은 시즌 6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이날 최지만은 4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으로 활약했다. 최지만은 올해 출전한 7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쳤다.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429에서 0.400(25타수 10안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다. 연합뉴스

## '손세이셔널' 역대 최고의 시즌 마무리

### 득점·공격포인트 모두 신기록 시즌 전체 22골 17도움 맹위 차범근 넘기 다음 시즌 기약

2020-2021시즌은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에게 역대 최고의 시즌으로 기억에 남게 됐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에 왼쪽 날개로 선발출전해 후반 추가시간 교체될 때까지 94분을 뛰었다.

손흥민은 특히 후반 31분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레스터시티의 골키퍼 카스퍼 슈마이켈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4-2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토트넘은 최종전 승리로 7위를 유지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출전권을

행하며 유럽 클럽대항전 막차를 뒀다. 손흥민은 개인 기록만 따지면 '역대급 시즌'이었다. 이번 시즌 EPL 무대에서 37경기 동안 17골을 쏟아내며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의 기존 리그 최다골 기록은 2016-2017시즌 작성한 14골이었고, 이를 3골이나 넘어섰다.

시즌 전체로 따지면 정규리그 17골 10도움, 유로파리그 3골 1도움, 유로파컵 1골 2도움, 리그컵 1골, FA컵 4도움을 작성, 22골 17도움을 기록했다. 시즌 22골과 시즌 17도움은 모두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기록이다.

또 다른 의미 있는 기록도 남겼다. 바로 '한국 선수 단일 시즌 유럽리그 최다골'이다.

한 골만 더 넣었다면 35년 만에 '차범근 뛰어넘기'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손흥민은 기록 달성을 다음 시즌으로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

###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